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6. 10. 14.(수) 배포 즉시 보도 가능		
경제활력국	노동일자리과장	문원영	☎ 710-2550	
	노동정책팀장	김영아	☎ 710-2551	

중소기업 노동자 복지격차 줄인다…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기업 모집

- 11월 13일까지 노동자 50인 이하 기업 35곳 내외 모집 -
- 기업·도·정부 공동 출연, 2027년 예산 확보 후 법인 설립 추진 -

□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소기업 노동자의 복지격차를 줄이고 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덜기 위해 11월 13일까지 ‘제주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’ 설립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.

-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 중소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 노동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.
- 모집대상은 도내 노동자 50인 이하 중소기업 35곳 내외이며, 30인 이하 사업장을 우선 선정할 계획이다.

□ 제주도는 2027년 예산안 심의를 거쳐 사업예산이 확보되면 법인을 설립하고, 2031년까지 최소 5년간 운영할 계획이다.

-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18억 9,000만 원 규모의 기금 조성이 목표다. 참여기업과 정부는 5년간, 제주도는 초기 3년간 재원을 출연할 계획이다.
- 참여기업은 노동자 1인당 연간 30만 원을 출연하고, 제주도는 출연기간 동안 1인당 연간 7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. 여기에 2027년 정부지원금을 확보해 기금을 조성할 예정이다.
- 조성된 기금은 참여기업 노동자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1인당 연간 100만 원 범위에서 설·노동절·추석 등 연 3회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.

-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도 누리집(www.jeju.go.kr)의 모집공고를 확인하고,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 - 제주도 노동일자리과를 방문하거나 전자우편(dhgustnr1004@korea.kr)으로 신청할 수 있다.
 - 제주도는 참여 희망기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월 26일 오후 2시 제주상공회의소 5층 국제회의장에서 사업설명회를 연다.
 - 자세한 사항은 제주도 노동일자리과(064-710-2552, 064-710-3796)로 문의하면 된다.

- 제주도는 법인 설립에 앞서 지난 9월 노동계·경영계·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설립 지원단을 구성했다.
 - 지난달 22일 지원단 회의를 열어 법인 설립·운영계획과 참여기업 발굴, 기관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-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“공동근로복지기금은 중소기업의 복지비 부담을 덜고 노동자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협력 사업”이라며 “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